우암학원 창학 71주년
WCC 세계적인 전문대학 선정!!
전남과학대학교
CHUNNAM TECHNO UNIVERSITY

光州日報
SINCE 1952

승원건설그룹 정규직 채용
■ 모집분야 : 공사/공무/안전/품질/재무/인사총무
■ 접 수 처 : s01532@naver.com ☎ 062)941-8680
FELICE 승원 팰리체

1952년 4월 20일 창간 제21798호 1판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음력 6월 15일 2022년 7월 13일 수요일

코로나19, 다시 코 앞까지 왔다

코로나 19 감염증 신규 확진자 수가 일주일 전보다 2배이상 늘어난 12일 오전 광주시 서구 상시 선별진료소에서 보건소 의료진이 검사자들을 안내하고 있다. /나명주기자mjna@kwangju.co.kr

신규 변이 'BA.5' 확산 … 광주 다음 달 하루 6000명 감염 전망

본격 휴가철 앞두고 악재 … 정부, 오늘 재유행 방역 대책 발표

코로나19가 방심한 틈을 타 광주시민의 코 앞까지 다시 다가왔다.

아직 대규모 재유행이 시작되진 않았지만, 여름 휴가철 이동량 증가와 에어컨 가동에 따른 실내감염, 면역 효과 감소 등 3대 악재에다 7월 들어 역대 최강급 전파력을 갖춘 코로나19 신규 변이인 'BA.5' 확산까지 겹치는 모양새다.

광주시 등 방역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등이 대부분 해제된 상황에서, '팬데믹 피로감' 등으로 기본 방역수칙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대규모 재확산이 발생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12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광주 662명, 전남 754명 등 총 1416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광주·전남에서 하루 신규 확진자가 1000명 이상 발생한 것은 지난 5월 31일 1045명(광주 431명·전남 614명)이후 42일 만이다.

코로나19의 급격한 증가는 오미크론 하위 변이인 BA.5 등이 주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광주는 지난 3월 이후 기존 오미크론보다 전파력이 30% 정도 빠른 것으로 알려진 '스텔스 오미크론(BA.2)'이 코로나19 지배종으로 자리잡은 이후 6월 마지막 주 들어서면서 오미크론의 신규 하위 변이인 BA.5가 빠른 속도로 확산하고 있다.

광주지역 BA.5 변이는 샘플검사에 따른 검출 수 기준으로 6월 넷째 주 3명, 다섯째 주 10명, 7월 첫째 주 39명으로, 매주 '더블링'을 넘어설 정도로 급증하고 있다.

광주에선 지난 5월 16일 해외유입을 통해 BA.5(1명)가 첫 발생한 뒤 지난 6월 3일 첫 지역내 감염(1명)이 나왔고, 6월 넷째주까지 3명이 추가됐을 뿐 별다른 확산세를 보이진 않으나, 6월 마지막주 들어 상황이 악화하고 있는 것이다.

BA.5 변이는 현재 지배종인 BA.2 변이보다 전파력이 강하고, 면역 회피 특성까지 지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백신 접종이나 감염으로 인해 면역력을 형성한 사람이라도 BA.5에 감염 또는 재감염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우려섞인 분석이다.

실제 원조 오미크론인 BA.1은 지난해 여름부터 겨울까지 유행한 델타 바이러스 대비 전파력이 2~3배로 강했으며, 이후 더 빠른 하위변위를 만들어 냈다. 현재 우세종인 BA.2는 부모격인 BA.1보다 전파력이 30% 이상 빠르고, BA.5의 전파력은 BA.2보다도 35% 이상 빠르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처럼 역대 최강급의 전파력을 지닌 BA.5는 현재 미국 등 세계 각국의 코로나19 재유행을 주도하고 있다.

방역전문가들은 우리나라도 BA.5 확산 등의 영향으로 이르면 내달부터 전국 하루 신규 확진자가 최대 10만명에서 20만명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광주도 현재 전국 대비 하루 신규 확진자 비율이 3%수준이라는 점에서, 다음 달이면 하루 최대 6000명대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추정도 나온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빠르면 8월 중순이나 8월 말, 또는 늦으면 9월이나 10월께 현재 대부분의 모델링이 10만 명에서 20만 명 정도의 확진자 규모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11일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약사회·간호사회 등 의약 단체장,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 기관장과 함께 '코로나19 재유행 대응을 위한 협업 간담회'를 갖고 치료시스템과 감염 취약계층 보호 대책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도 13일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른 강화한 방역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간토 대지진 조선인 학살 100년 진상규명·명예회복 특별법 추진

국내외 40여 개 시민단체 연대

국내외 시민단체와 정치권이 합심해 1923년 일본 간토(關東)대지진 당시 벌어진 조선인 학살의 진상 규명과 피해자 명예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선다.

'간토학살 100주기 추도사업 추진위원회'는 1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발족식을 열었다.

간토학살은 1923년 9월 1일 발생한 규모 7.9의 간토대지진이 일본 수도권 일대를 강타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재일 조선인과 중국인, 일본인 사회주의자 등이 학살된 사건이다.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 방화한다' 등의 유언비어가 퍼져 자경단, 경찰, 군인에 의해 6000여 명(독립신문 기록)이 살해됐다.

발족식에는 1923한일재일시민연대, 민족화해범국민협의회,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겨레하나, 민족문제연구소, 시민모임 독립, 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 우리학교와 아이들을 지키는 시민모임,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지구촌동포연대 등 국내외 40여 개 시민단체가 참여했다.

추진위 공동위원장을 맡은 이만열 시민모임 독립 이사장은 "당시 상해임시정부는 진상 조사에 나서 조선인이 억울하게 학살된 것을 세상에 알렸지만, 책임을 묻거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했다"며 "억울하게 죽은 이들이 누구고, 어디에 묻혔고, 유족은 어디 있는지 아무 것도 제대로 드러나지 못한 채 100년의 세월이 흘렀다"고 말했다.

이어 "만시지탄이지만 나치의 홀로코스트에 앞서 자행된 민족 학살을 더는 외면할 수 없어 시민단체가 연대하게 됐다"며 "진상 규명은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반드시 앞서 해결되어야 할 과제다. 이 끔찍한 역사의 유산을 후대에 물려주지 않기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행위원장을 맡은 김종수 '1923한일재일시민연대' 대표는 추진위 주요 사업으로 '특별법 제정', '학살을 알리기 위한 국제학술회의 개최', '99주기와 100주기 추도식 한일 공동 개최', '학살 진상을 알리는 특별전시 및 순회전시 개최'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반도체·2차전지 등 전문인력 14만명 양성

정부, 2026년까지 1.5조 투입

정부가 2026년까지 약 1조5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반도체·2차전지 등 미래첨단산업과 조선·자동차 등 산업별로 전문인력 14만명을 양성한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산업부 업무보고를 했다.

산업부는 올해부터 2026년까지 총 1조5300억원을 투입해 신산업 분야 3만9000명, 주력산업 분야 5만2000명, 탄소중립 분야 1만2000명, 산업협력 분야 3만9000명 등 총 14만명의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특히 반도체, 이차전지, 미래차 등 미래 첨단산업 선도를 위해 필요한 신산업 석·박사급 연구개발(R&D) 및 설계 인재를 집중적으로 양성하고, 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형 인재를 신속하게 육성해 인력 '미스매치'를 해소할 수 있도록 비(非)학위제 민간 교육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산업브레인센터'를 구축하는 한편 하반기까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산업인력혁신특별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또 내년 상반기까지 업종별 현장 인력을 대상으로 한 인공지능(AI) 교육도 확대한다. 아울러 산업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바이오·AI·나노 분야의 창의적 혁신 인재 양성을 위해 범정부 추진 체계와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창의적인 산업 인재 양성을 위해 내년부터 관계 부처와 산업계, 대학, 연구기관 등과 '창조적 인적자원 창출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추진한다. /연합뉴스

민선8기 단체장에 듣는다 - 윤병태 나주시장 ▶5면
장현우 관장의 유럽 미술축제 관람기 ▶11면
K리그 올스타 - 토트넘 오늘 한판 승부 ▶18면

사랑과 감사의 68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2]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바이탈뷰티
마시는 프리미엄 콜라겐
슈퍼콜라겐 골드
구매문의 : 아모레퍼시픽 카운셀러를 통해 구매하세요 080-023-5454